

박유미

평론

마치 꿈만 같은 사랑은 영감이 되어주고, 그녀의 신중함은 집중력과 더불어 종이 위 혼을 불어 넣고 사물에 생명을 부여한다. 빛의 힘을 잘 알고있는 그녀는 빛에 대한 고도의 감각으로 그림 속 정물들을 변형시키기도, 또는 매우 색다른 맛을 내기도 한다. 빛의 '질감'과 '형태'를 잡아내고 풍부하게 묘사 할 줄 아는 그녀는 우리가 지금껏 보아온 것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한다.

“투명하고도 거짓없는 새로운 생명체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그 순수한 열정”

맑고 맑은 수채화를 보면 때문지 않은 정신의 나들이와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아울러 그러한 그림을 그린 사람의 감성은 새로 돌아다는 풀잎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주 사소한 바람 한 줄기에도 상처를 입는 어린 풀잎을 연상케 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수채화는 그만큼 순수하고 순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물감을 투명한 물에 섞어 하얀 종이 위에 그리고 그 담백한 제작과정 때문일까. 아니면 영혼이 채 머물기 전인 소학교 시절에 만나는 재료이기 때문일까. 아무튼 수채화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 그리더라도 그 누가 어찌지 못할 순수성이 있다.

박유미의 수채화는 새삼 어린 눈에 미치는 세상의 순수성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그렇다. 그의 수채화에는 단순히 그림 속의 소재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이미지에 국한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순수한 시각이 자리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는 이러한 순수성은 역시 수채화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표현적인 특징의 하나이다. 그것은 아마도 고쳐지지 않는 표현의 일회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이라는 매체의 속살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투명한 수채 물감의 재료적인 특성 때문이기도 하리라.

그의 수채화는 이렇듯 재료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제작기법을 따른다. 그러기에 그의 그림 속에 들어오는 소재는 무엇이든 간에 투명하고도 거짓 없는 새로운 생명체로서의 이미지를 얻는다. 아무리 하잘 것 없는 것일지라도 그의 손을 거치면 '순수미'라는 아름다운 얼굴로 답하게 된다. 그림에 대한 그의 시각은 이처럼 사물이 지닌 고유의 형태 속에 담겨 있는 순수미를 찾아내는데 집중된다. 색채가 유난히 밝고 맑은 것도 이러한 작가의 미의식에 기인한다. 천성적으로 삶을 아름답게 이해하려는 시각의 소산인 것이다.

수채화에서 가장 즐겨 다루는 정물과 풍경에 집착하면서 때로는 현실적인 공간감을 무시한 다중구조의 구성적인 작업을 하기도 한다. 정물과 풍경은 그 자신의 삶의 공간과 생활반경에서 일어나는 소재에 국한한다. 반면에 다양한 소재가 혼재하는 복합적인 이미지의 구성적인 작업은 지나간 시간의 반추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이처럼 두가지 형식의 작업을 하는 것은 그 자신의 회화적인 시간 가운데서 새로운 모색의 시기에 들어가 있음을 말해 준다. 이제까지 단순히 눈앞에 놓인 소재의 형태만을 문제삼아온 재현적인 작업방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의 한 표현이 아닐까.

실제로 그는 스스로가 지루하다고 느껴질 만큼 많은 시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재현작업에 바쳤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강인하게 단련할 수 있었다. 적어도 그린다는 사실 앞에서는 결코 주저하지 않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다. 정확한 묘사력과 색채 및 형태 분별력에 관한 한 그의 작품에서는 더 이상 주문할 것이 없다고 해도 과찬이 아니다. 그리고 수채화가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법 또한 거의 다했을 데 없이 소화하고 있다. 특히 사물의 표면을 읽어내는 감각은 그가 얼마나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 준다.

그 스스로는 정물과 풍경이 지어내듯 아름다운 시간선상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형태 속에 담겨 있는 아름다움에 너무 현혹되는 것을 경계한다. 작가적인 의식과 조형성이 담긴 회화적인 공간에 대한 욕구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어쩌면 배경에 여백 및 추상적인 이미지를 도입하는 것도 이렇듯 자기변신을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노력이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되 현상으로부터 구별되는 회화적인 조형공간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세상에 대한 그 자신의 시야를 넓히는 일이기도 하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자신에게는 어떠한 모양으로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자신을 포함하여 누구나 새로운 미적 체험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형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그는 손바닥을 벗어나지 않는 조그만 세계를 영위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것은 일상적인 삶의 모음들이자 그 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소재에 집착해 왔다는 사실로써 증명된다.

그러나 최근 작업을 보면 그의 의식세계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서고 있다는 느낌이다. 여전히 아름다움에의 찬미는 계속하면서 일상을 벗어나는 의식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배경을 여백으로 두든지, 추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등 일련의 비가시적인 세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그러한 표현은 그 자신의 내면세계를 반영한다. 그것이 의식의 그림자이든 또한 순수한 감성적인 반응이든간에 시각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세계임은 분명하다. 때로는 그러한 이미지는 무한공간으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그 자신의 잠재적 욕구의 한 표현인지도 모른다. 아니, 단순히 조형적인 해석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림이란 반드시 그 자신의 의식세계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도 모른다. 아주 명료하여 그 자체만으로 명백한 형태감각은 시종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온다. 그에 비해 추상적인 이미지는 꿈의 유영처럼 부드럽고 잔잔하며 고요하다. 번짐 기법으로 처리되는 추상적인 이미지는 지금 현상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는 그 자신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는 막연한 듯 어려워지만 이미 현실과는 또 다른 아름다운 회화적인 환상의 세계로부터 오는 전언을 받아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좋다. 그는 오래전부터 단지 그리는 일에 심취해 왔을 뿐이다. 스스로의 감성이 이끄는 대로 따르다보면 어떠한 답이 오리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다. 그의 그림에는 것처럼 담담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순수한 열정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에 쉽사리 현혹되도록 이끈다.

신항섭 미술평론가.

자평

영감, 명상적인 집결이 곁들여진 그림은 꿈만 같은 사랑의 가치를 화폭에 생동감 있게 표현합니다. 빛의 힘에 대한 그녀의 고귀한 감수성은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가며 수많은 원근법으로 그녀의 정물화를 변화 시킵니다. 빛의 짜임새와 형태를 이용하는 그녀의 능력은 순수한 심미적 경험을 창조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녀의 보고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전통적인 우아함 중에서 추억에 잠기게 하는 소재를 선택하여 삶의 질. 그리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인도하여 대인관계에 있어서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한다.

박유미는 빛의 다중층(multi-layering)에 관한 기술적인 사용과 잇달아 일어나는 반사광은 그림에 담겨진 뜻을 보는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거기에는 신비에 넘치는 구성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이의 감각적인 시간을 갖게하는 첼로 연주에서 색의 로맨스로 공중에 올려 퍼지는 분위기를 통해 일러주는 것들이 그것입니다.